

伊민족운동 이끈 '세속의 성인'

데니스 맥 스미스 지음 「마찌니」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데니스 맥 스미스(Denis Mack Smith)는 이탈리아의 '국토회복운동'(risorgimento)에 관한 한, 이탈리아 본토를 비롯하여 전세계를 둘러보아도 가장 뛰어난 역사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예언자, 기우세페 마찌니(Giuseppe Mazzini: 1805-72)에 관한 새 책을 출간하였다. 책 이름은 「마찌니」("MAZZINI", Illustrated, 302 p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이 책은 당시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뿐만 아니라 마찌니라는 인간에 대한 명징한 교감과 그의 사상에 대해 웃음을 여미는 경경심에 바탕하여 서술된 매우 빼어난 전기이다. 사실 맥 스미스의 이전 책들—예컨대 가리발디, 무솔리니, 카부르 그리고 기타 이탈리아의 여러 군주들에 관한 것들—두루 읽어본 독자라면 저자가 '왜 마찌니 시대에 관한 교과서적인 지식들을 부쉬주지 않을까' 하고 내내 기다려왔을 터이다. 마찌니는 이 책 속에서 일종의 '세속의 성인'(secular saint)으로 등장하는

데 이러한 설정으로 해서 저자는 종종 마찌니를 비난하는 현대인들 또는 다른 역사가들로부터 그를 방어하느라고 고초를 겪는 듯하다.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마찌니가 1837년에서 1845년에 이르기까지 런던에 망명해 있던 동안의 영국 체함과 교우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영국의 휘그당 계열의 동조자들이 어떻게 그에게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고 또 모반 조직의 결성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에 결정적인 자금도 제공했는지를 천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저자 맥 스미스는 마찌니는 당대의 중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오늘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격리되고 빈궁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탁월한 교육가였으며 또한 뛰어난 지하조직가였다. 그는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근대 정당인—확실한 정강과 교의를 갖추었다는 점에서—'청년 이탈리아'(Young Italy)를 건설하였다. 또한 그는 적어도 두 세대의 이탈리아인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몸바치도록 복돋은 사람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오로지 끊임없는 민중 봉기만이, 외국의 개입이나 어떤 왕조의 외교적 노력—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사람은 그 이전의 마키야벨리였다—을 통하지 않고 이탈리아 스스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런 금융주의적 혁명노선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카부르 백작이 온건론자들과 피에드몽에서 벌인 통일노선 논쟁에서 이러한 노선이 많은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실로 그들은 나폴레옹 3세를 꼬드겨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돕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마찌니의 위협을 이용하여 통일을 도모하는 데 써먹기도 했다. 한편 마찌니는 유럽의 '국가공동체' 또는 모두가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유럽 연방 공화국을 최초로 구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더욱이 그의 사회주의적 사유들은—협업적 기업과 국가주도의 보험에 뒷받침받는 사회 복지—대단히 매력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것으로서, 만약 차후 유럽 노동운동이 이러한 생각들을 채택했다면 몇 날 인간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었으리라고 사료된다는 것.

정말 그랬을까. 여태 마찌니에 대해서는 항상 상반되는 견해들이 짝을 이루고 존재해왔다. 저자 맥 스미스와 같이 마찌니를 높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마찌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찌니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가 소모적인 모반에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내몰아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동안, 그는 런던에서 안전하게 몸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일 크게 든다. 더욱이 그는 투스카나 또는 롬바르디아 지방국가들처럼 잘 운영되어가고 또 인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던 국가들조차 전복을 도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찌니는 끊임없이 "인민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 망명객으로서 그는 인민들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정말 무지했다. 당시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특히 남부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사상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그의 사상은 일부 이상주의적 대학생과 쓸데없이 말만 앞세우는 계층 정도에만 먹혀들었다. 사실 그는 자기를 지원하던 동조자들—가리발디를 포함해서—과 끊임없이 싸웠다. 그리

고 1870년 이탈리아가 완전히 통일되었을 때도, 마찌니는 이탈리아가 스스로 통일을 할 수 없었음을 분하게 여겼으며 또 통일국가가 평생의 꿈과 다른 "유물론적이고 부도덕한 국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늘날 마찌니는 매양 "인간의 의무"에 대해 설교하고 자기 희생적인 종교적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지루한 구닥다리 수다쟁이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여러분들은 진짜 국가(다시말해 큰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작은 집단 예컨대 아일랜드나 시실리아에 속해서는 독립을 침해받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그 자체로 코르시카, 말타, 그리고 남 티롤지방을 거느린 대 이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마찌니의 생각으로는 나이브하게 보일 정도로 진짜 국가만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진짜국가들은 서로간에 적대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마치 이전의 제국처럼 변하였고 끝내 분열되고 말았다. 마찌니의 사회관 또한 산업화되고 계급적으로 분화되는 유럽의 상황에서는 걸맞지 않았고 실제로 1871년의 파리 코뮌을 비난하면서 그는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의 상당부분을 철회하고 말았다.

저자 맥 스미스의 마찌니에 대한 노련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소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전기의 가장 큰 장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7 - 27 SM빌딩 502호
전화: 515 - 9190, 512 - 9636 팩스: 517 - 8436

천상과 지옥의 비밀을 동시에 밝혀주는 금지된 계시록!!

간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감독 데이비드 린치 전격 영화화!!

세븐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다.
— 뉴욕 타임즈
— 한숨도 돌릴 수 없는 위기의 연속!!
「세븐」이 가진 18세기 유럽문화의 재 해석. 작가 마크 프로스트의 모든 힘에 대한 경계 논리. 그것은 성경의 계시록을 빌려 현대인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 국민일보 편집부장 장재진
신과 악마의 싸움은 오랫동안 모든 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하지만 「세븐」처럼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치밀하게 쓰여진 작품은 극히 드물었다.
— 출판 저널 기자, 시인 김중식

「트윈 픽스」의 작가 마크 프로스트 원작

「세븐」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최고의 축복이었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하여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세븐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셜록 홈즈」와 「인디애나 존스」 그리고 「양들의 침묵」을 결합한 훌륭한 소설이다.

신국판 / 전 2권
각권 값 6,000 원

도처에 감동적인 스릴이 넘치고 숨가쁘게 책장이 넘어간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반전과 소름이 오싹 끼칠듯한 멋진 표현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세븐을 손에 집어든 여러분은 좀처럼 책을 놓을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맞게 될 것이다.

세븐

은 복잡하고 극단적으로 엇갈리게 평가되는 인물에 대한 단선적이고 확신에 찬 그림 그리기에 있다. 도덕적이고, 금욕적이며 종교적인 인물이었지만, 당시의 정치가와 군주들에 비해 그는 훨씬 생동감있고 잔혹할 정도로 현실주의적인 인물이었다. 평생토록 공화주의자로서 그리고 혁명가로서 그는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당파가 정권을 획득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통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놓고도 새로운 통일 이탈리아를 혐오했던 그이기도 했다. 만약 민족주의란 것이 대단히 야심만만한 개념이었다면—실제로 그랬지만—그는 이 개념을 선도한 이론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탁월한 전기는 이러한 개념상의 애매모호함을 잘 분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 유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바그너 축제의 역사적 실상 「바이로이트」

바그너(Wagner)와 그의 유산에 대해 시종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 주제와 상관없는 요소들의 영향은 배제하면서 오롯이 책 한 권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희귀하기도 하거니와 실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프레데릭 스포츠(Frederic Spotts)가 방대한 역사적 자료들을—음악, 인물, 정치 그리고 예술 일반—마스터하고서 이들을 매우 유려하게, 때로는 재기발랄한 표현속에 담아 책으로 내놓았다. 책명은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의 역사」(“BAYREUTH: A History of the Wagner Festival”, Illustrated, 334 p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저자는 연대기적 순서를 유념하면서 유려한 솜씨로 시간의 흐름을 좇아간다. 펜시리 도덕적이거나 미학적인 평가를 덮쳐우지 않고서 다시 꼼꼼히 읽을 독자들을 예상하여—그들이 바그너 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글을 쓰고 있다. 어차피 바그너의 생애와 바이로이트의 위상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평가되므로…….

바이로이트는 바그너를 추모하는 축제의 이름이며, 또한 그 축제가 행해지는 건물의 이름인데, 지고의 이상주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여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과대망상의 산물이 아니라 바그너 자신의 삶이 그랬듯 순전히 예술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른 산물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다 그렇듯 바이로이트 역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만성적인 기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는 아내였던 코시모의 잘못된 판단, 즉 남편

에 대한 신뢰가 지나쳐서 1876년 「반지」(Ring)를 무대화하여 겪은 실패의 결과로 바그너 사후에 빚어졌던 문제로 인해서.(바그너는 이 작품의 실패는 일종의 재난이었다고 했다) 그후 이 축제는 바그너의 아들인 지그프리트가 가족들의 성화에 못이긴 나머지 정권과 타협하여 꼴을 갖추게 되고, 그가 죽고난 후 이 축제의 실질적 주도자로서 영국인이었던 미망인 비니프레데에 의해 바이로이트 축제는 머지않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히틀러의 열광적인 협찬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스포츠의 이 담담하면서도 전혀 시니컬하지 않은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의 역사」를 읽다 보면 바이로이트가 때때로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실패의 극단적인 궤적을 보이는데 거의 절망적인 형태로 깜짝 놀라게 된다. 그것은 이 축제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바그너가 죽고난 후, 이 가문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싸움질을 해 왔다. 서로가 물고 뜯는 것을 넘어서서 가문의 치부를 독설로 찌갈진 것을 출판하는가 하면 축제의 주도권을 이어받는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기도 하였다. 정치적 항상 그들을 내리 놓았다. 1883년 바그너가 죽고난 직후 바이로이트는 급진적인 반동 이데올로기인 국가주의의 센터가 되었다. 이것은 미치광이 같은 바그너의

사위, 휴스턴 스투워드 챔벌린—영국인이었는데 바그너의 딸 에바와 결혼하여 광적인 나찌주의자가 되었다—이 날뜰 결과였다. 그는 죽을 즈음 히틀러로부터 독일의 은인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저자는 히틀러의 제3제국과 바이로이트 사이에 엇물린 복잡한 이야기들을 소상히 전해주고 있는데 나찌주의자들 가운데 히틀러가 제일 열광적인 바그너주의자였으며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이 축제에 참가하여 지루한(?) 연주를 즐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히틀러가 바이로이트 축제를 정권의 선전용 문화 진열장으로 만들긴 했어도, 바그너를 진짜 존경해서 바그너의 며느리이자 축제의 책임자였던 비니프레데에게 많은 자율권을 보장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히틀러 치하에서 바이로이트 역사상 최고의 예술적 성공으로 꼽는 둘 가운데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다.

두번째 성공 시대는 첫번째 성공의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반동의 결과였다. 2차대전이 끝난 후 바그너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저주받은 존재였다. 따라서 바이로이트 축제가 다시 열린 것은 1951년에 와서야 가능했는데 그것도 바그너의 손자 비이란트의 재능에 힘입은 바 컸다. 이 당시에 와서야 바그너 작품에 대해 이데올로기와 관련없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바그너가 열망했지만 실현

시키지 못했던 신화적 형태를 해석해 낼 수 있었다. 비이란트가 1966년 49세의 나이로 죽자 바이로이트의 내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비이란트는 끊임없이 실험적이었으며 가혹할만큼 자기비판적인, 가히 바그너의 참된 종손이었다. 1966년 그가 죽은 다음 음악적 재능을 거의 물려받지 못한 동생 볼프강이 쓰잘데없이 떠다니던 당시의 온갖 음악 조류들을 집적거렸지만, 기껏 그가 생산해낸 작품은 미워했던 형의 것을 채 소화도 못한 채 베껴낸 것이었다.

저자 스포츠는 미국 외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하바드 대학 유럽연구소에서 재직중인데 그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로이트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안내역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 고증상의 몇가지 문제가 눈에 띄는데 쿤데 프르트베글러를 나찌주의 지휘자로 일괄해서 보아서는 안될 것 같고 또 “비이란트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자는 작곡자 핏츠너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룹이었다”는 언술은 비이란트의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두해 전인 1949년 핏츠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문제는 전혀 전체적인 맥락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런 지적이 그의 책을 보완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할 따름이다.

양자강의 푸른 눈 (A SINGLE PEBBLE)

플리처 문학상 수상작

존희시 지음
최인자 옮김
신국판
220면
4,800원

A SINGLE PEBBLE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

- ▶ 간결하면서도 아무런 결점을 발견 할 수 없는 소설이다. 이 책은 자연에 대한 많은 상징을 담고 있다. - THE NEWYORKER
- ▶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존 허시는 마술적인 요소와 공포 그리고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는 양자강의 드라마를 모두 담고 있다. 미국인의 자아 발견과 중국민족에 대한 발견은 양자강의 생생함과 전통, 관습에 비하면 왜소하게 보일뿐이다. - THE NEWYORK TIMES BOOK REVIEW
- ▶ 진정으로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다. 상상력의 화면위에 모든 풍경이 뚜렷하고 아름답게 투사되어진 소설이 A SINGLE PEBBLE이라 할 수 있다. - ATLANTIC

그대 어깨에 기대어 푸른 꿈 (La Shamade)

프랑소와즈 사강 지음
최유경 옮김
신국판
302면
5,200원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어 끝내 심장을 포개 수 없는 우리
선선한 그리움이며 사랑이며!

- 5 사랑은 언제나 너무 느리게 혹은 너무 이르게 오지.
- 6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모순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 7 하지만 당신이 나를 떠나가더라도, 여전히 행복하기를 하던 더이상 바랄 것이 없어.
- 8 내에게는 기다림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 9 때로는 고독에 완전한 행복의 순간이 있는 법이니까.

이제 그대도 나를 기다리지 마라 온통 내가 되어 있는 그대 가슴으로 그대가 되어 다가가는 나를 기다려 다오 - 詩人 함민복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한 남자

송민호 지음
신국판
330면
5,200원

우리의 몸속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그것은 심장이다
우리의 생각속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그것은 환상이다

공간의 문 언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개였다.
그림속의 연인 당신은 자살하고 싶은 정도의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건넌 물장은 없다 화면에서 발사된 총알이 실제 살인을 일으켰을 뿐!
내비 지하철에서 나비를 붙여놓는 여인, 나비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보는 여인
새를 만난 밤 사진 속의 주인공을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
황새 꼭 짊어진 각본처럼 기아할 길을 인도하는 황금빛!
눈 밝으면 어둠처럼 찾아와서 공포에 쫓겨 가는 사내의 미소

“ 어디까지가 출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저희 도서출판 버팀목에서는 출판의 광역 의미에 도전하며 출판의 신 개념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출판 버팀목에서는 특정한 버팀목을 찾고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 출판계에 특정한 버팀목이 되실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 모집부문 | 자 격 | 구비서류 |
|------|-----|--|
| 편집 | 0명 | 출판에 뜻이 있고 자신의 창의력과 활동성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분이려면 모두 만나보고 싶습니다. |
| 디자이너 | 0명 | 우편으로 접수하실 분은 저희가 우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면 되겠습니다. |
| 영업 | 0명 | |

* 합격자는 개별 통지 합니다.
* 우편접수는 8월 30일까지입니다.(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 주십시오)
* 기타 문의 사항은 도서출판 버팀목으로 해 주십시오.

도서출판 버팀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7-27 SM빌딩 502호 도서출판 버팀목
TEL. 515-9190/512-9636